

희귀종 백련 청아한 자태... 동양 최대 '연꽃 군락'



무안군 회산 백련지에 연꽃이 화사한 자태를 드러냈다. 이곳 일대는 연꽃을 활용한 농업과 관광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국가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무안=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농업유산 전남의 '오래된 미래'

8 무안 회산백련지

면적 33ha 2001년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 '연잎쌈밥' '연꽃차' 등 다양한 상품 경쟁력
경관·농업 가치 농업유산 등재 요건 충족
태안·경주 등 비슷한 자생지 등재 걸림돌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일대 연꽃 군락인 회산 백련지에 연꽃이 처음 핀 것은 지난 1955년의 일이다. 인근 덕애부락에 살던 한 주민이 백련 12구루를 심은 것이 백련지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주민이 백련을 심은 날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학 12마리가 내려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좋은 꿈이라 여긴 주민들은 연꽃을 가꾸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양 최대의 연꽃 자생지로 자리 잡았다.

◇자연경관 일품=이곳은 원래 농업용 저수지였는데, 일제강점기에 250ha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981년 영산강 하구둑이 완공되면서 영산강에서 바로 농업용수를 끌어오기 시작해 저수지 기능은 사라지고 지금의 연방죽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곳은 둘레가 3km, 면적은 33ha에 달하고 연꽃 자생지는 지난 1997년 연꽃 축제가 열리면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 지난 2001년에는 한국판 기네스북에 백련 집단서식지로 등재됐으며, 연꽃을 활용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 지역 농협이 '백련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본격적으로 연 산업에 뛰어들었고, '하늘백련' 등의 지역공통브랜드를 만들어냈다.

전국에 유통되는 '연잎쌈밥' '연꽃차'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으로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백련지 일대는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농업 그 자체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의 기준인 경관 자연적 가치와 농업 본연의 가치가 공존해 충분히 등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관광을 접목시킨 일본의 경험=농업 유산은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 유명 연꽃 관광지 무안 백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의 사례를 꼭 읽어 볼 만하다.

노토반도 일대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계단식 논이 펼쳐져 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이 계단식 논은 큰 것은 20평(66㎡), 작은 것은 모 여섯 포기를 심으면 차고 넘치는 정도지만 한 해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또 농사를 짓지 않는 겨울철 빛 축제를 열어 해마다 1만명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시카와 현청은 관광객의 방문이 뜸한 겨울에 맞춰 계단

식 논둑에 3만개의 전구를 설치해 불을 밝히는 '빛의 축제'를 열고 있다. 올해는 오는 11월9일부터 2014년 3월 16일까지 제3회 축제가 열린다.

또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근 농가는 민박을 통해 부수입도 올리고 있다. 노토반도 인근 마을 주민들이 47곳의 민박을 운영하면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현청도 계단식 논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행사를 열고 있다. 이들 민박에는 일본 각지의 수확여행단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계절에도 이색 축제를 열어 관광을 활성화한 셈이다. 무안 백련지도 연꽃 축제뿐 아니라 다양한 계절별 체험행사 등을 개발해야 성공적인 관광 산업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축제를 통한 수입은 덤=무안군은 연꽃축제를 대표 축제로 정하고 백련지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 또 관광객이 늘면서 내년부터는 연꽃축제 입장료를 받을 방침이다. 연꽃축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덕이다. 연꽃과 불꽃놀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초청 법회와 타악 퍼포먼스, 연요리경연대회, 퓨전국악한마당 등 40여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광객을 사로잡고 있다. 또 축제장 주변에서는 백련지 연등길 걷기, 세계 연 전 시간,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 시골장터, 농수특산물 홍보와 전시판매장 운영 등 20여개 부대행사도 곁들여진다.

무안군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연꽃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호수내 데크시설을 보강했고, 보행자그늘 쉼터와 물놀이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백련지는 수상유리온실, 산책로 등이 잘 갖춰져 있어 관광과 농가 소득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곳"이라며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안 청산수목원, 김제 하소백련지, 경주 안압지 연꽃단지 등 국내외에 비슷한 형태의 연꽃 자생지가 많다는 점은 농업유산 등재의 걸림돌이다. 무안만의 특징을 찾아내고 보존해야 농업유산 등재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오광록기자 krah@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아시아 농업유산 연대 협의체 결성

한·중·일, 보존·활용방안 공동연구

아시아 각국의 풍부한 농업 유산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가 결성된다. 안도군 청산도 구들장논의 세계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일본 전문가들이 동아시아 농업유산 연대 협의체(EAFAHS)를 결성한다.

2일 안도군에 따르면 최근 청산도에서 개최된 '청산도 구들장논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워크숍'에서 한·중·일 3개국 농업유산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농업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동아시아 농업유산 연대 협의체 협의체를 결성키로 했다.

한·중·일 3개국 관계자들은 이번 '청산도 선언'을 통해 동아시아 3개국 농업유산 전문가들이 협의의 통로를 구축해 연구, 교육, 훈련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연대 협의체에는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윤원근 회장, 일본 유엔대학 다케우치 교수, 중국 과학원 민 박사 등 3개국 농업유산 전문가 23명이 참여한다.

동아시아 농업유산 연대 협의체는 농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보급과 상호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4년 4월 중국 하이난에서 제1차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3개국이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중식 안도군수는 "동아시아 농업유산은 물론 세계농업유산의 지속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중·일 농업유산 보존과 계승을 위해 협의체를 결성했다. 사진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일본 노토반도에서 열리는 빛의 축제 모습. <이시카와현 제공>

Dunlopillo
Feel the Difference

던롭침대 & 온열/안마침대

소파앤틱/모던

식탁/TV장

NAVER **홍스페이스** 지하 2층~5층 가구빌딩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